

**동우컬럼**

내가 지시했다고 해!

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결재한다.

지난주에도 신문을 읽는데, 어느 주의 종의 글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의 종이 다를 분야가 아닌 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 편집장에 전화를 걸어, “필자에게 전화해서 이 글을 바꾸라고 해라. 목사는 간증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는 글을 써야 한다고 전해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네가 편집국장이야. 상대가 목사라고 해도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그에게 ‘총회장 목사님의 지시입니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했고, 편집국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 편집국장이 전도사 신분이기에 목사에게 지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기에, 뒤에 내가 있기에 편집국장이 당당히 목사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안수할 때
가이와 같다. 내 힘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계시
니,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가능한 것이다.

목회 초 부친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내게 ‘야! 너는 못 쫓아.’ 그러는 거다. 순간 털썩 겁이 났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셨다. “그래, 난 못 쫓아. 근데 너 예수 알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뒤로 벌렁 나가떨어졌다.

주의 종들이 왜 귀신을 못 쫓는지 아는가? 두려워서다. ‘귀신이 안 나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다. 그러나 자고로 명령권자가 책임도 지는 법 아닌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으니 명령권자인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 편집국장이 책임질 일이 없다. 그냥 내가 시킨 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만일 상대가 ‘감히 전도사가 목사에게 이래라저래라해?’ 한다면, 편집국장이 내게 이르면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 목적을 위해
자존심을 버려라!”
지난 수요일예배에 목사님이 강력히 촉구
하신 말씀이다.

“어느 날, 한 어여쁜 아가씨가 엉덩이에 큼직한 뽕루지가 나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여 이를 치료하러 병원에 갔더니 아니, 의사가 엉덩이를 까라는 거 아닙니까? ‘에구머니나, 망측해라!’ 놀란 아가씨는 당장 병원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아가씨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하나 마나 그 통증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당장 아파 살겠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 말라죽은 겁니까? 엉덩

받아 쫓기다가 급기야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뭐 말라죽은 거랍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든지 말든지 그 사지에서 벗어나야 미래를 도모할 거 아닙니까? 죽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살아야 미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목적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께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딸아이만 고치면 된다는 목적에 충실했기에 수욕을 참고 견디더니 예수님께 인정 받고 딸을 고침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내가 헬라인 귀족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고 자존심을 부렸다면, 딸을 고쳐야 한

살고 봐야지요. 당장 수욕을 당하고 자존
심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일단 내가 살아
야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닙
니까? 괜히 남에게 사람 좋단 말 들으려
하지 마세요. 나는 해외집회에 가면 대통
령이 만나잔다, 주지사가 만나잔다, 시장
이 만나잔다 하며 나를 끌고 가려 합니
다. 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
지려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그
곳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
합이 아닙니까? 반드시 집회가 성공해야
하고, 또 이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내가 그들 비위나 맞추고 품이나 잡다



이를 까든 말든 치료받고 통증에서 해방되는 게 상책이죠. 웃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 때문에 뻔대다 꼴딱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왕의 자존심 지키려다 정작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 아닙니까? 뭐가 중한지 모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으나 그 신하들이 알아보자 이리다 죽겠다 싶어 짐짓 미친 체하고 침까지 질질 흘려가며 사지에서 벗어났습니다(삼상 21:10~15).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장이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영웅이면 뭐합니까? 그런 과거의 영화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로 인해 사울의 미움을

다는 본래 목적은 결코 이를 수 없었겠지요(막7:2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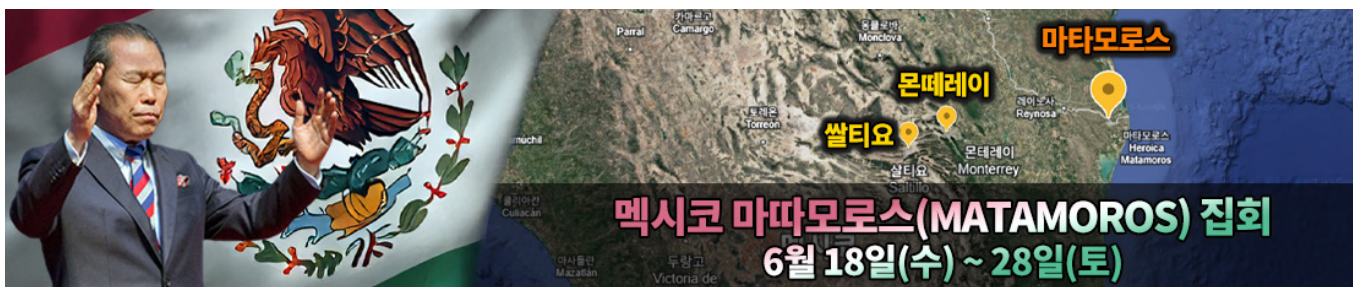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그가 부자집 아들로 유산을 당겨 받아 세상에서 평평거렸지만 다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되더니 왜 지나 먹는 쥐엄 열매조차 구할 수 없어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데서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면목이 있냐'고 다 포기했다면, 정말 각지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지요. '그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살아야겠다. 살고 보자!' 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베풀었지요(눅15:11~24).

가 집회 망하고 나면, 나는 누구한테 하소연한단 말입니까? 먼저 내 목적에 충실해야죠. 일단 집회를 성공시켜놓고 볼 일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러든 말든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루 7, 8시간 무릎으로 기도하며 집회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세요. 더더군다나 신앙에 절대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을 잊지 마시고 모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3:19)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5월 한 달 동안 열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일곱 살짜리 아이부터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사모...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어떤 인 짧은 인생, 어떤 긴 인생을 살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오래전 천국 가신 송태찬 장로님의 아내 박 권사님도 90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생각이 깊었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흠으로 빛은 인간은 누구나 한 줌의 흠으로 돌아가는구나(창3:19)!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겠는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겠다.'

저는 송태찬 장로님의 가족을 생각해봤습니다. 박 권사님의 선대(先代)는 주의 종을 주님 섬기듯 하였고, 나그네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셨습니다. 그 집에 평양에 살던 송태찬 장로님이 '남한으로 가라'는 하나님 음성과 공궤(供饋)라 쓴 이상을 보고 남하하여 박 권사님과 부부의 연을 맺었고, 둘 사이에 7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일곱 모두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 하나만 배출해도 대단한 일일진대 자녀 일곱 모두가 주의 종이 되었으니 송태찬 장로님과 박 권사님은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신 것입니다. 세상의 유산이 아닌 하늘의 유산을 남기신 거죠. 어디 자녀들뿐입니까? 사위, 손주들도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으니 참 복되고 위대한 집안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춤을 출 것이냐 통곡할 것이냐 생각하며 살자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도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흠으로 돌아가니, 살아있는 자는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지 생각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9:27)는 말씀 때문입니다. 인생, 길어봐야 백 년이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흠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흠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영혼은 죽지 않고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보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계20:13). 또한 천국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그것 역시 행한 대로 받습니다(계22:12).

그러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할까요?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遺皮 人死遺名 -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술집, 도박장이나 만들어놓고 살다 가면 그야말로 헛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돈 벌어서 학교, 고아원, 기도원, 교회, 신학교..., 이런 선한 사업을 하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값진 삶은 주를 위한 삶입니다.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은

그야말로 최고의 삶이요, 천국에 안착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후대를 받을 만한 삶입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 안대를 서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아이들을 복도에 재우면서도 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인들과 병든 자들을 차에 태워 교회에 모시고 오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바보라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빌딩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러나 그거 갈 때 못 가지고 갑니다. 박 권사님도 빈손으로 가십니다. 성경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 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전5:15)라고 했습니다. 제발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삽시다. 가진 돈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가진 명예로 세상을 돕고, 가진 지식으로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삽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

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삽시다(롬14:8). 그리고 자식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천국 소망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건물 넘겨준다고 평생 잘 산다는 보장 있습니까? 박사 만들어줬다고 그 자식이 평생 잘 가라는 법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천국에서 문전박대당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누군가 벌어먹더라도 지옥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습니다.

송 장로님 내외를 보세요. 자녀들에게 땅이나 빌딩이 아닌 오직 믿음

만을 남겨주니 자녀들이 다 하나님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부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약속하셨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수1:7~8)고 약속하셨습니다.

룩펠러를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것이 사업의 종자돈이었습니까? 아니요. 열 가지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꼭 드려라,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예배 시간에 맨 앞 자리에 앉아라... 그 유산을 받은 룩펠러

가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으면서 낳은 성경 한 권을 유산으로 남기며,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유언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된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일랑 버리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하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은 내세의 운명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도 주장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신6:6~9).

믿음을 자손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서 바울이 가장 신뢰하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다시 너에게로 물려 내려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딤후1:5). 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배웠다고 했습니다(딤후3:15). 찬송가 중에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라고 나오지요? 디모데가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자식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삼상2:12). 그러니 죄를 물마시듯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장에서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아비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 말고,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남길까’ 생각하며 사십시오. 누구나 죽고, 그 후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춤을 출 것이냐, 통곡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딤후6:7).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안전마진

워런 버핏은 “훌륭한 기업이라도 너무 높은 매수가를 지불하면 투자자는 그 후 10년, 그 기업의 성장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는 배팅할 때 항상 매수시점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부분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은 종종 중기적으로 열악한 실적을 제공하면서, 결국 더 적절한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투자에 안전마진이 필요한 것은 이른바 ‘역복리’, 요컨대 손실이 복리로 불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단 1년만 큰 손실을 입어도 과거의 모든 노력과 희생은 완전히 헛된 것이 될 수 있지요. 버핏이 안전마진 개념을 대중에게 쉽게 풀어 말한 것이 그 유명한 ‘2대 투자규칙’입니다(규칙1: 절대 돈을 잃지 말 것, 규칙2: 규칙1을 절대 잊지 말 것).

버핏은 지불하는 가격과 획득하는 가치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곧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본 안전마진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낮은 매수가를 지불하면,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기업에 대한 나쁜 뉴스(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이미 할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역으로 기업에 대한 좋은 뉴스(호재)가 나오면, 매우 높은 수익이 가능하지요.

투자세계는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

(fair price)에 매수해서 이를 장기간 보유하는 일을 잘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반면, 평범하거나 그저 그런 기업을 싼 가격에 매수해서 주가가 적정가치(fair value)로 상승하면 이를 팔고 다시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투자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실체가 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거나 리스크가 아주 작은 주식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 두 전략 모두 그레이엄이 말한 안전마진 원칙의 또 다른 버전들입니다.

그레이엄의 경우, 안전마진은 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 혹은 AAA등급 채권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버핏의 경우, 안전마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높은 투자자본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능력은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수한 경영자들이 창출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에서 나옵니다.

아주 좋은 가격인 싼 가격(wonderful price)에 적정기업(fair company, 적당한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적정가격(fair price)에 아주 좋은 기업(wonderful company)을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13:44).

이미경 권사

:: 성경에세이 ::

보여주는 신앙

여보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물결이 나부끼고, 살갓에 닿는 느낌으로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와 인체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게 된다네. 더욱 구체적으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을 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새삼 실감하지. 그래서 예수님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대해 확증하셨던 거야.
나도 낮설고 물설고 말도 선 이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성령의 역사를 먼저 영상으로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리고 욕토로 변하지.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힌다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였고, 그래도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14:11)고 하셨네.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귀신을 쫓

고, 병을 낫게 하신 거라네.

여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나 보여줄 수 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병어리는 말하게 하고, 암이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게 하면 돼.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못하네.
사람들은 의사나 과학자의 말은 신뢰하지만, 목사의 말은 도무지 믿질 않네. 왜냐? 증거가 없기 때문이야. 의사나 과학자는 근거를 내어놓고, 결과를 들고나오는 데 목사는 설교만 하니까 믿질 않는 거야. 이제 목사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네. 또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이웃과 나뉘어 사랑의 하나님을 온 천하에 나타내야 하네. 시각적인 감동은 늘 청각적인 감동을 능가하니까.
보여주는 목회! 우리,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자고!

봉우

:: 책을 펴다 ::

반복의 힘

어느 동네에 힘겨루기 시합이 있었다.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 처음에는 싹 한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무게를 늘려가는 방식이었다. 팔뚝이 나무통만한 사람들이 번쩍번쩍 싹부대를 들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낙오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한 가마에서 두 가마가 되었을 때는 겨우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우승 후보처럼 보였으나 한 사람은 저기서 무슨 힘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허약해 보이는 자가 결승에 올라와 있었다.

드디어 두 사람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정말 예상외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승리했다. 우승자가 말했다. “나는 매일 싹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싹 한 가마를 든 것이 아니라 차츰 무게를 늘려가면서 꾸준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합

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맞다. 매일 힘을 쓰는 자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 체력이 좋다고 해도 힘을 써보지 않으면 적은 일에도 무리가 온다. 이는 마치 엄마들이 제법 큰아이들을 안거나 업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과 같다. 매일 아이를 안았기 때문에 너끈히 안을 수 있는 것이다.

날마다 달리는 자가 마라톤을 완주하듯이, 매일 노력하고, 노력하는 자가 진일보할 수 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탁월한 두뇌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매일의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매일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자가 돼라. 오늘 노력한 만큼 성장의 폭이 넓혀진 것이니, 매일 당신을 채찍질하라. 성공의 그 날까지.

이초석 목사 저서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에서



:: 낮은 울타리 ::

창조주가 지은 것

얼마 전 제가 사는 아파트 전체에 전기 점검으로 인해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는 사람이 만든 거라 자연재해나 시스템 오류로 쉽게 끊길 수 있구나.’

똑같이 빛을 내지만 절대 끊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와 달입니다. 낮에 비치는 해도, 밤에 비치는 달도 사라지거나 빛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해와 달을 만드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고(요1:12), 세상의 빛과 소금(마5:13~16)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자라고 하시며(요16:33),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마9:23)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해가 절대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권세를 잃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지 않지만, 커튼을 쳐놓으면 그것이 차단되듯 말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살다 보면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놓치고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작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낙심하며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빛을 잃지 않는 것은 믿으면서 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은 믿지 못할까요? 해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며, 하물며 저희를 가장 귀하게 지으셨는데 말입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장수정

일단 하자! Just do it!

성경 통독은 나에게 숙제같이 느껴졌다. 매년 초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세우고 작성하는 나에게 남편은 작성하지 말고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해주었지만 사실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청장년부 팀원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는데, 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성공했다. 혼자서 하다 보면 흐지부지되곤 했는데 팀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읽어가니 어느덧 성경 통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생각만 하고 목표만 세웠으면 안 됐을 텐데, ‘우리 성경 통독하자’ 하고 마음먹은 것을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서로 독려하니 완독하게 된 것이다. 전도를 하는 것도 어찌면 그런 일 중의 하나였다. 수영 강습을 다니며 알게 된 언니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언니가 3년 전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중환자실에 한 달 넘게 입원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다. 죽을뻔했는데 살아서 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전도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다. 강습 후 사위 중이라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도 많고 해서 나중에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아차 이러다가는 절대 못하겠다’ 싶어 “언니, 교회 다녀요?” 하고 물어보니 무교라고 했다. 그래서 “언니, 예수님 믿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하고 용기 내서 일단 전하고 봤다. 그러자 본인도 교통사고가 난 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교회는 내가 갈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언니를 위해 기도할게요.” 하고 말하니 “응, 기도해 줘! 나 기도해 줘!”하며 적극적으로 기도를 요청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일상에서도 전도하라는 총회장 목사님 말씀 따라 그 후로도 카카오톡으로 전도를 시도하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의 반응이 긍정

적이었다. 해보지도 않고 ‘싫어할 거야, 부담 주지 말아야지’ 하던 내 생각과 광계를 접고 틈나는 대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대미문의 축복도 받으려는 행동을 일단은 해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축복을 주시려고, 가득 부어주시려고 ‘요이땅!’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받을 준비를 하고 일단 뚝뚝지 해야, 발을 떼고 움직여야 응답이 오든, 축복이 오든 하겠다고 생각했다. 기회도 움직여야 보이고 해봐야 내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시로 방언 기도하고, 수시로 귀신 쫓고, 수시로 공부하고, 수시로 전도하여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한다. 일단 하자! ‘Just do it!’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Good News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각각 그 죽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불신자가 죽게 되면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그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죽을 사(死)에 망할 망(亡)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사망이

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부를 소(召)에 하늘 천(天)을 사용해서 ‘하늘에서 불러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준비하여 천국에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두렵고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는 날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시간이기에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혼의 때를 맞이하여 참된 안식이 있는 더 나은 분향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주님을 향한 노래 ::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요소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기도를 마지막 유언으로 삼을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간단명료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다매오를 마주했을 때 그가 소경임을 아시고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보기를 원한다’고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형편이 여의잖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 나갔고, 부모님도 힘닿는 대로 뒷바라지해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아들을 네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내게 맡겨라.” 그 후로 부모님은 아들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뵈고, 부모님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이 입고 온 얇은 여름 양복이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아팠던 어머니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우리 아들이 추운 겨울날 얇은 여름 양복을 입고 다니게 하시나요?” 그때 어머니에게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아들이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아고보서 4장 2절에는 ‘우리가 얻지 못

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스겔 36장에는 무너졌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사실도 우리가 기도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조목 조목 필요한 것들을 구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는 자녀에게 먼저 젖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이호민 전도사
fioe154@naver.com

예수 우리 왕이여!

교육관에서 기도를 하던 중이었다. 한 찬양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런데 찬양 중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는 구절에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더 크게 외치게 되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 주님의 세밀하고 거룩한 음성이 들렸다.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어 고맙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며 왕으로 대접받기에 합당한 분인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니 몸 둘 바를 몰랐다. 가사에 등장한 ‘좌정(坐定)’이라는 뜻은 ‘자리를 잡아 앉다’는 것으로, 단순히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닌 그 땅의 주인을 의미하며, 왕의 자리에 앉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경배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찬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요즘 나오는 CCM들은 자신의 기분과 환경, 태도만 언급한 채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부분은 상당수 줄어들고 자신의 입맛대로 맞춘 예수님만 찾고 있다.

최근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은 왕이 준 마패와 같다’는 설교를 통해 성령이 가진 능력을 설명하셨다. 이는 목사님이 왕이신 그분을 존중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왕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모두 버리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왕으로 고백해보자.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실 것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시 145:1).

송현해 생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종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월, 화, 목, 토)
문의: 02.533. 9191

삼우인쇄공사 : 02)2272-9831

www.jcc.tv